

'08. 3. 4(화) ~ 3. 5(수)

第268回 道議會 臨時會  
道政質問 答辯書



忠清北道  
CHUNGCHAEONGBUK-DO

# 建設文化委員會

## 金 仁 洙 議員

1.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책
2. 균형발전 관련

질문제목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책		
질문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인수 의원		
소관부서	균형발전본부	답변자	도지사

- 오늘 첫번째 질문해 주신 김인수 의원님께서  
는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  
지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보  
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 및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답  
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국장과 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무산에 따른 후속대  
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발표한 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의 보은군 이전은 지

난해 3월 보은군 순방시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면  
서까지 이전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다만, 보은발전협의회에서 대안으로 지난 1월 제  
출한 신라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구병산 석도설치사  
업에 대하여는 사업 대상지인 보은군에 법령 및  
지역여건 등에 대한 종합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보은군이 추진주체가 되어 도와 공동으로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  
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  
니다.

다음은, 보은바이오농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 방안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은 바이오 농산업단지는

-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2006년 8월 보은군 삼승면 일원에 330만 평방미터의 산업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 2007년 10월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당초 계획된 개발계획 용역기간을 3개월 앞당겨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 앞으로 수요분석 및 입주업종 결정 등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 하겠습니다.
  - 또한, 당초의 기본계획인 바이오농산업을 국한하지 않고, 입주수요 분석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여 보은군은 물론, 남부지역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 및 보상을 2009년에 추진하여 2013년까지 단지 조성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제목	경제특별도 선포이후 보은, 단양군의 기업유치는 전무한 실정으로 불합리한 지역간 균형유치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질문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인수 의원		
소관부서	경제투자본부	답변자	경제투자본부장

□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 투자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선포이후 지역간 기업유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 민선4기 출범 후 우리 도는 첨단기업 유치를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월말 현재 투자유치 실적이 81개 업체 13조 5,69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 도내 북부권 및 남부권의 투자유치 실적이 청주·청원 등 중부권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투자유치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 중 단양군에는 지난 2월 21일에 LS-Nikko 동제련(주)과 2,1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투자불균형 문제의 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 가장 큰 요인은 북부권 및 남부권에 비해 교통·물류 등 여건이 양호한 중부권에 투자기업의 입지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 중앙고속도로와 보은~상주간 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물류 여건 개선에 따라 북부 및 남부권의 기업유치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투자 불균형 해소와 지역간 균형 있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 지난해 9월부터 북부 및 남부권 7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 금년에는 권역별 순회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북부와 남부권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은 물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발굴하여 중점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북부와 남부권의 전략적 기업유치에 필요한 맞춤형 공장입지 조성 공급을 위해
  - 지난해에는 북부와 남부권 5개 시·군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조사를 거쳐, 적정 입지 2개소 선정을 완료하였고
  - 금년도에는 해당 부지 매입,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공장입주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주력하는 등
  - 북부와 남부권의 공장입지 수요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노력과 병행하여
  - 현재 조성중에 있는 북부와 남부권의 산업 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 조기 확보 노력을 통해 단지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 조성계획 중인 보은 동부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지도 조기에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해당 시·  
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감으로써
-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도내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제목	①균형발전지원조례의 예산의 획기적 증액 ②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질문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인수 의원		
소관부서	균형발전본부	답변자	균형발전본부장

□ 균형발전본부장 김 경 용 입니다.

○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①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액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 ②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액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 2005년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6개의 낙후 군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특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2006년부터 5년간 도비 75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낙후 지역은 A그룹에 괴산과 보은군, B그룹에 증평과 영동군, C그룹에 옥천과 단양군이 선정되었으며 그룹별로 매년 26억원~22억원의 예산을 낙후 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위해

-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을 확보하여 낙후 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단양군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함으로써 도가 5개군 사업비 전액을 2007년도

로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도비 15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시군별 전략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양군을 제외한 5개 군에서는 2007년도에 교부한 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금년도로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 사업비에 한하여 전략사업비의 70% 정도인 96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49억원은 공모사업비로 전환한 후, 단기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 낙후지역 발전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략사업과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권역별 연구전담팀에서 발굴하는 우수 신규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하는 등 낙후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획기적 증액문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도의 재정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전략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의 증액을 통하여 타시도와는 차별화된 낙후지역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활성화에 최근 3년간 1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우리 도에 얼마나 실익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7년 4월에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 개항초기 한때 국제노선 폐지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

되어 폐쇄 위기까지 이르렀으나 바다가 없는 우리도가 세계로 나갈 유일한 길은 하늘길이라는 인식 아래 유관기관 및 지역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이용객이 10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 현재 청주공항에는 국내선인 제주는 매일 12회, 국제선은 북경 주2회, 상해 주9회, 심양 주1회 취항하고 있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활성화가 해외여행편리로 인해 도민의 해외여행을 부추기는 결과와 제주, 서울시에 관광객 수송 역할로 타 시도에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 시대의 항공기 이용객은 여행목적 이외에 비즈니스, 문화·스포츠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



러 가지 목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07년 우리나라 출국자는 1,300만명,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주공항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도민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시간·경제적 부담이 엄청날 것입니다.
- 또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연간 중국인 해외 여행객이 5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베이징~청주간 정기노선을 취항시켰고 12월에는 북경 현지에서 청주공항과 도내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 현재 중국 관광객들은 서울과 제주관광을 선호하고

있으나 청주공항과 연계된 도내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충북 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어 교육·문화 등을 주제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청주국제공항은 중국과 동남아 주요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충청권 상생 발전의 필수 기반 시설로서, 대전과 충남도가 함께 제정한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활용, 신규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겠습니다.

□ 청주공항 활성화가 우리 도에 주는 실익으로는

- 청주공항에 취항하는 노선이 다변화 되면 우선 도민들이 인천공항 이용 시보다 시간·경제적으로 가장 큰 절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 또한, 청주공항이 활성화 되면 공항 인근에 오창·오송, 진천·음성 등에 입주한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 항공정비업, 화물 특송업 등 항공 연관 산업의 발달로 고용증대가 예상되고 외국 기업체 및 국제행사 유치에 용이하게 됨으로써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질문제목</p>	<p>○ 관광특구 활용미흡 및 관광 사업비 투자 불균형에 대한 대책 ○ 지역 균형 있는 인프라구축 계획 ○ 보은 삼년산성 등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p>		
<p>질문의원</p>	<p>건설문화위원회 김인수 의원</p>		
<p>소관부서</p>	<p>문화관광환경국</p>	<p>답변자</p>	<p>문화관광환경국장</p>

□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입니다.

□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관광특구 활용미흡 및 관광 사업비 투자 불균형에 대한 대책,
- 지역 균형 있는 인프라구축 계획,
- 보은 삼년산성 등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수안보, 속리산, 단양 등 3개의 관광특구를 도지사가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와 속리산은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 충주 수안보는 물탕공원조성, 노천온천욕시설, 경관조명 등 2006년까지 135억원
  - 보은 속리산은 소나무 숲 복원, 연꽃단지조성, 황토길 조성 등 85억원이 투자되었고,
  - 단양은 2006년도에 지정되어 활공장 편익시설, 야경조명 등 46억원을 투자하여 특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도에서는 관광특구의 개발방향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 앞으로도 특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해당 시·군

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특구로써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사업비의 불균형 투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사업은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매년 3~4월에 시·군의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교수 등 관광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확정을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국립공원의 사업시행 및 시

설관리를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 있으며, 보존이 우선시되는 특수성으로 관광 개발 분야에서 투자가 지난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관광 개발 분야에 더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도내 문화 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2007년 12월 현재 도내 문화 인프라는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야외음악당, 문화의 집, 문화학교 등 8종에 93개소가 있습니다.

□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 계획을 말씀드리면

- 문예회관과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국

비와 지방비를 일정비율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 사업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기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런 힘든 여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며 도차원에서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의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농촌 지역 등 문화소외 계층이 있는 지역에 문화인프라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은 삼년산성 등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을 이어주는 종합예술체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들은 조상의 예지와 숨결이 깃든 민족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계승·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타깝게도 지난 2월 10일 국보 제1호 승례문이 방화로 소실되었습니다.

이번 방화사건을 계기로 도내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 점검대상은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록문화재 등 총 41건의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로서, 점검결과 31개소의 문화재는 방재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소화기 구입비치 15개소, 비상연락체계 구축, 순찰활동 강화,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문화재별 방재 매뉴얼 제작 설치 등은 현재 일부조치 및 계획 수립 중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적극적으로, 항구적 방재시설 대책으로, 화재 감지기, CCTV, 소화전, 스프링 쿨러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5억원을 문화재청에 요구하여 5개년 계획으로 방재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번 점검에서 제외된 도 지정 문화재 등 540건의 문화재에 대하여도 3월중으로 시·군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마쳐, 점검결과에 따라 단계별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 재난, 훼손으로부터 보호 되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년산성 복원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년산성은 사적 제235호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수·복원에 따른 예산, 설계승인, 기술지도 등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 삼년산성은 복원과정에서 기존 성벽과 복원된 성벽의 일부가 화

강석으로 시공되어 이질감이 나타나 복원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 보은 삼년산성은 최초 1971년부터 보수공사가 이루어 졌으며, 서문지를 들어서면서 좌측 부분의 성벽은 무너진 성돌을 최대한 수습하여 복원 하였습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벽은 1991년부터 시행한 서문지 우측부분으로, 기 보수한 구간에서 무너진 성돌을 최대한 수습하여 사용하였으나, 같은 재질의 돌이 없어 화강석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원과정에서 기존의 성벽과 같은 질감의 성돌을 구하기 위하여 1991년 보은군에서 관내 11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 삼년산성 성곽에 사용될 점판암 계통의 성돌을 찾았으나, 보은군 관내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 또한 점판암이 있다 하더라도 산림법에 의거 국도에서 가시거리 1Km 이내이거나, 하천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파괴, 하천오염 등으로 토석채취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삼년산성 복원 성돌 문제와 관련하여 1992년 8월 설계심사 회의결과 전판암계통의 절석을 구할 수 없으므로 현재 시공되어 있는 화강석을 사용하여 정비토록 결정되어 이후 6년여('96년까지) 동안 화강석을 사용하여 성벽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 1996년 9월 삼년산성에 대한 감사원 특별 기술 감사 결과 화강석 사용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설계·관계자 회의결과 등에서 지적되지 않았으나,
- 성벽상부 강회다짐의 두께 미달, 수목제거 등 일

부 지적되어 재시공 조치와 관련 공무원 즉 문화재청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 보조감독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지시가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소홀로 중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 삼년산성의 성벽은 오랜 세월동안 자체하중, 자연적인 피해로 인하여 붕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무너질 때 성돌 자체가 균열이 발생되고 깨져서 다시 수습하여 사용할 때에는 20~30% 정도 밖에 재사용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삼년산성은 성벽 높이가 최대 15m로서, 기존 무너진 성돌은 최대한 수습 사용하였고, 무너진 성돌이 하중에 견딜만한 면석이 없었으며,
- 일부 있다 해도 돌의 상태가 산화되어 강도가 떨어져 있고 자체 압력을 견디지 못해 균열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화강석으로 대체 시공되었다는 당시의 문화재청 관계자의 설

명이 있었습니다.

- 또한 문화재보수공사는 재래의 방법으로 가공, 시공하도록 지방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운반 등 인력으로 불가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 1990년도 까지만 해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 복원에만 전념한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부터는 원형복원을 전제로 산성 복원시는 무너진 성돌을 최대한 수습,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삼년산성 북문지 복원 공사와 같이 기존 성돌 확보량에 따라 성벽 높이를 조절하여 쌓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특히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단양 온달산성은 쌓여진 성돌의 재질이 점판암 계통의 판석으로 성곽의 특징이 잘 남아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옛 산성군 학술조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삼년산성, 상당산성, 온달산성, 덕주산성 등 잘 남아 있는 산성에 대하여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형·보존을 위하여 국보, 보물, 사적, 산성, 도지정 유형문화재 등 문화재복원 공사시, 설계에서 공사 완료시 까지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형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제목	중요문화재가 많은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에 119안전센터를 증설하여 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는 대책은?		
질문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인수 의원		
소관부서	소방본부	답변자	본부장

□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 문화재가 많은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에 119안전센터를 증설하여 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신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보은, 괴산, 단양군에는 중요 관광자원과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화재예방이나 초기진압 등 원활한 소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방인력과 장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보은군에는 보은읍에 119 안전센터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범주사가 위치한 속리산면까지 상당한 출동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속리산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 시키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 금년도 정원조례가 개정되어 운영인력을 확보하면 속리산 119안전센터를 개칭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 설치에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소요되며,
- 지역내 인구, 소방대상물 및 소방 활동 등 소방수

요와 우리도의 재정여건, 총액인건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 산업단지 조성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